

참회의 눈물 (하)

이상열 (OO구치소 재소자)



그림 · 문병성

처음에 허도 돌아가지 않던 독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습니다. 맨 처음 경전을 온전하게 다 읽었을 때는 눈물이 흘러 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된 것처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독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하고 경전을 읽을수록 세세생생 쌓아온 내 업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으면서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 새벽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피해본 분들 위해

독경과 새벽기도 병행하며 참회

부처님 가피로 감형 받고 평안 찾아

처음에는 다 읽고 나면 녹초가 되면 몸 또한 이제는 피곤하기 보다 개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차 독경 이후 새벽기도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도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새벽기도를 자매증을 얻은 아들이 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과 내가 없는 가정에도 제발 화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염원하기 위해서만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새벽기도 시간은 내 모든 행위에 대해 곱씹고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께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지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 한 것은 아니었다"

는 변명도 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처님께 울며 매달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야 진심어린 죄스러움에 참회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독경도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구치소에 오기 전까지는 '불자'라고는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독경이나 기도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곳 구치소에 와서야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정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여기 들어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불자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수기를 쓰는 것도 처음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천수경>과 <금강경> 등의 경전 독송도 어느 순간이 되자, 전혀 잡념 없이 읽어갈 수 있었고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처음, 새벽에 일어나서 면벽하고 경을 읽고 있으면 한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도관들께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구나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기도하더라'라고 알정도가 되다 보니 조금 속고 싶고, 피곤할 때 한 번씩 독경과 기도를 빼먹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도 다른 분들의 시선과 의식이 스스로 단련하는 마음의 재력이 됩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주위의 모든 분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전을 읽고 있다는 환희심 때문에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구치소 사람들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경을 읽고 참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겠지. 생각하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부처님 법'이지만 또 다른 분에게 내가 옳지 못한 방식으로 강요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인연되는 분들과 함께 내 경험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또 딱 높으신 스님들께 법을 청해 들을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루 열두 번도 더 생기던 잡념이나 불안감, 미워하고 불평, 불만 등을 가졌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행복하고 편안함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약 2년간의 수감생활 중에서 지금까지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며 더구나 지난 2005년 8월 15일에는 대서면 기소에서 무려 남은 형기에서 10개월여의 감형까지 받고 보니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못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자매 증세를 보이던 큰아들 녀석도 악화되는 기미 없이 병세가 점점 호전이 되고 있으며 사촌지 어린 자식들까지도 부처님의 가호 아래 큰 문제없이 잘 자란다 하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온갖 잡념과 괴로웠던 마음, 악한 마음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면 서, 허물어진 만큼 이웃과 피해보신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한 것에서 이제는 피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며, 마음 깊이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진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의 몸으로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수도 있었는데 부처님의 말씀과 큰 은덕으로 철과 철로 쌓여있던 마음의 문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억겁을 갚아도 다 못 갚을 죄업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죄 값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서 부처님 전에 영드려 감을 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던 일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과 후회 속에 있는 불자들이 계시다면, 나와 같은 사람도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아시고 더욱더 부처님께 귀의하셔서 용맹정진 하세요. 그리고 나면 지금의 어려움과 후회는 태양빛에 사라지는 불날의 눈처럼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광명정대한 불국정도와 부처님의 가호아래 모든 생명이 가진 것은 성불하시길 두 손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 글을 따집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정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서는 수행의 반례자, 불자님들께서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납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판매가 많지 않아 인평판매 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한산사
- 대 표: 손상형, 박길임
- 주 소: 경남 하동군 약양면 평사리 산 47번지

위 사찰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지방간염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달머리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저 97마니를 달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을 토종 (민속농원)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으로 치료한다 - 기천탕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분은 **윤량환의원 윤량원장이 개발 처방한 기천탕으로 치료하세요**

기관지천식이란 천명을 수반하는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작적으로 일어났다가 잠시 계속된 뒤 진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풀이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강하게 경련하여 수축되고 기관지의 내강은 좁아져 버리는 일입니다. 둘째는 기관지 안쪽의 점막이 염증으로 말미암아 비후되어서 내강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관지 점막으로부터 점조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붙어서 담의 양이 많아지게 되어 기관지의 내강을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량환의원의 윤량원장은 수년간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천연생약으로 연구 개발한 기천탕을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임상결과 많은 환자가 치료됐으며 복용 환자의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서는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지천식을 상담하실분은 전화 및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기천탕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처방은 전화상담만으로도 기천탕을 처방하여 보내드립니다.

윤량환의원 원장이 개발한 처방으로 기관지천식에서 해방되세요. 위의 천연생약으로 개발한 기천탕은 한의사와 상담후 처방됩니다.

윤량환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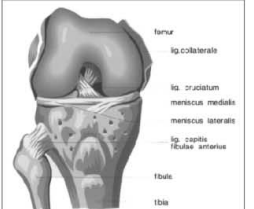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환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기쁨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꼈던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환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